'일상의기쁨을이는지혜로운인생' 전도서인생론시티즈4 (전도서 3:16-22)

우리의 인생은 일상을 통해 일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고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자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8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데운 속으로 이르기를 일에 대해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 모든 인생들에게 일과 수고를 하게 만드셨고 그 일과 수고를 시험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일 지체가 목적이 아닌 일 하고 수고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를 알 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원이적 뜻은, '밝힌다. 그러낸다'라는 만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상에 서의 일을 통해 국구적으로 하나님의 심한 뜻을 위해 일을 하는가?아니면 자신의 뜻을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를 놓고 시험하고 밝혀 내火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수 많은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과 수고가 결국은 해 아래서의 헛된 수고임을 보였습니다. 전도자는 수 많은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과 수고가 결국은 해 아래서의 헛된 수고임을 보였습니다. 전도자 자신도 앞서 2장에서 이미 말씀한 것과 같이 가신이 사업도 크게 별이고 많은 포도원과 과원들 그리고 수목들은 만들여 보이들은 사서 더 많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다 늘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림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역한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을리는 도정이고 수고면 전도자는 점증과 사람이 다를 부분이 했다(18~21절) 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강 양은 박사께서 쓰신 '일상의 철학'에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내가 왜 일상에서 일을하는가?에대한의미쪽질문을해야하는것입니다. 이 질문에성경 적답은 무엇일까요?

둘째, 일상에서의 일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룩하고도 영광이 되는 영역 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일과 노동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과 보람을 일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정5 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 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 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입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이 땅 가문데 우리 인간이 일상에서 일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기 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가운데 '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 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4:34)'라고 증거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의 일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륙이야 할 하나님의 거류한 뜻의 수고와 딸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Cafing'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을 받은 Cafing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에서의 일은 적 업에 귀천이 없는 거록한 소명의 자리인것입니다. Business as Mission, Business is Mission의 소명자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일상속에서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의미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으로 알고 내가하는 일이 즐겁고 보험이 될 것입니다(22절). 나의 일상에서의 일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한 뜻과 영광이 되도록 맡겨진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눈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

"한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12)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일반집회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러브미션부 주일 오전 12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2시	초등부 주일 오전 12시	유치부 주일 오전 12시	유아부 주일 오전 12시	영아부 주일 오전 12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교후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마스 야무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시니어사역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새가족부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다민족사역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00.
투글들 목사 (646)467-2675	叫	절 최순성 목사 (917)246-9493	œ 0젚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퍈	중 폴 김목사(201)679-2924	요 오 환 장
히스패닉 이효성목사 (646)549-6043	야 	년 부 김성준목사 (617)949-1118	2호 도교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5,6선교회	러브미션 박명애전도사(718)737-1643	라브미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4 선 교 회	중고등부 손주영전도사(917)797-4237	병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3 선교회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K-l n o
최순성 목사 (917)246-9493	2선교회	⊣π	유 차 무
1 선교회 김성준목사 (617)949-1118	1 선 핃 회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유아

단비 기독교TV(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

2024년 10월 6일

1부 욮	1부 예배 8:00am 2부 예배 10:00am	3 무 요	3부 예배 12:00pm
드림 워십 인도:	워십 글로리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인도: 최순성 목사	블레싱 워십 인도:	9 워십 인도: 김성준목사
*경배와 찬e Worship Song	*경배와 찬양 두나미스 찬양팀 Warship Sang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원 Invocation	인도자	경배와 찬양 블레싱	[;] 블레싱 찬양팀
*성시교독 Responsive Reads	'성시교독 제34번(시편81편) Responsive Reading '#34(PSalins 81)'	기도	김선태 집사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공동체 소식 영상	1 영상
 사 사 사	새93장(통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성 영 내	히브리서 10:21-27
기도 Prayer	방용복 장로 Elder, Yong Bok Bang	년 년 왕	"나 무엇과도 주님을'
Scripture Scripture	전도서(Ecclesiastes) 4:1-12	益目	"우리가 모인 이유" 김성주 목사
* SFE Offering	새213장(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 (1,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I (- -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배산을 넘어 혐곡에기도"	[찬 양	"함께 지어져가네"
설교 Preaching	"외로운 인생이 아닌 위로자의 인생" "Not a Life of Loreiness, but of Lifting Up" 김학진 목사	H 4F	김성준 목사
* * * * * * * * * * * * * * * * * * *	새490장(통542) "주여 지난밤 내 꿈에" There's a Dream That I Dream		
*축丘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		

제54권 40호